

2025 군무원 9급 국어

응시번호 _____ 성명 _____

점수 _____ 점

1. <보기>에서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술어는 그 의미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수의 성분을 요구하는데, 자릿수에 따라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등으로 나뉜다. 서술어의 자릿수가 모두 채워지지 않으면 문장은 불완전한 것이 된다.

- ㉠ 눈이 한없이 내린다.
- ㉡ 경미가 입김을 분다.
- ㉢ 눈이 비로 변한다.
- ㉣ 영수가 어른이 되었다.

- ① ㉠: ‘내린다’는 자동사로서 한 자리 서술어
- ② ㉡: ‘분다’는 타동사로서 한 자리 서술어
- ③ ㉢: ‘변한다’는 부사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
- ④ ㉣: ‘되었다’는 보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

01

해설 ②

[풀이] ‘입을 오므리고 날숨을 내어보내어, 입김을 내거나 바람을 일으키다.’의 뜻인 ‘분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도 이미 주어(경미가)와 목적어(입김을)가 포함된 문장이며, ‘타동사’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한 자리 서술어는 잘못된 설명이다. ㉢은 두 자리 서술어가 올바른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눈, 비, 서리, 이슬 따위가 오다.’는 뜻의 ‘내리다’는 주어(눈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한없이’는 생략이 가능한 수의적 부사어이다.
- ③ ‘무엇이 다른 것이 되거나 혹은 다른 성질로 달라지다.’의 뜻인 ‘변하다’는 주어(눈이)와 필수 부사어(비로)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④ ‘어떤 시기나 시점에 이르다.’의 뜻인 ‘되다’는 주어(영수가)와 보어(어른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2.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여기가 우리 고향인 데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지.
- ②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니신 데 큰 실수를 하셨다.
- ③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 ④ 많이 먹기는 먹는 데 살이 찌지는 않는다.

02

해설 ③

③의 ‘읽는V데’의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 명사이다. 띄어 써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어미이기 때문에 ‘고향인데, 아니신데, 먹는데’로 붙여 써야 한다.

참고 ‘데’

의존 명사(‘곳, 장소, 일, 경우’)

예) 그를 설득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 ‘데+에’)

예)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 ‘데+에’)

예) 가까운 데다가 놓다. (→ ‘데+에+다가’)

① 어미(화자가 경험한 일을 보고하듯이 말할 때)

예) 그가 말을 아주 잘하데. / 그 친구는 아들만 돌이데.

② 어미 ‘-는데’.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예)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지.

예) 나무가 정말 큰데. / 그 옷은 얼만데?

3. 어려운 표현을 쉬운 말로 고쳐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관(→담당)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적의(→예방) 조치를 취한 후 이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기(→이미) 통보한 신종플루 대응 복무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 ④ 감염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염 확산 방지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03

해설 ②

‘적의(適宜)’는 ‘적의하다’의 어근이며, ‘적의하다(適 갈 적, 宜 마땅할 의)’는 ‘무엇을 하기에 알맞고 마땅하다.’의 뜻이다.
 예) 그 지역은 기후와 토질로 보아 인삼 재배에 적의하다. 농사 짓기에 적의한 기후.
 ‘예방’(X)이 아니라 ‘알맞은, 마땅한, 적절한’(O)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소관(所 바 소, 管 피리 관):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
- ③ 기(既 이미 기)
- ④ 여기서 ‘기(期)하다’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이루도록 하다’ 또는 ‘어떤 상태가 되게 하다’는 뜻이지만, 일상적인 현대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행정문서나 격식체의 표현이다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바로 쓰기 자료에서는 이를 어렵고 상투적인 한문투 표현으로 언급하며 고쳐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 ㉠ 계기를 나타내는 경우: “16일 밤을 기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와 같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시작됨을 나타낼 때는 “16일 밤부터”로 고친다.
- ㉡ 목표를 나타내는 경우: “완벽을 기하다”와 같이 어떤 일을 이루도록 노력하거나 목표를 세울 때 사용할 경우, “완벽을 꾀하다”, “완벽을 위해 힘쓰다”로 고친다.
- ㉢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 “만전을 기하다”와 같이 어떤 일에 빈틈없이 주의를 기울일 때 사용할 경우, “빈틈없이 하다”, “온 힘을 다하다”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4. 밑줄 친 부분의 높임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모자를 보여 드리지요.
- ②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나라.
- ③ 궁금하시면 제게 여쭙어보세요.
- ④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04

해설 ③

‘여쭙다’ 또는 ‘여쭙다’는 객체 높임의 표현이다. ③에서 발화자는 ‘저(제게)’이고, 청자는 ‘보세요’로 높임의 대상이다. 이 표현에서 발화자가 자신을 ‘여쭙어’로 높인다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발화자는 자신을 낮춰 ‘물어’로 고쳐야 한다. “궁금하시면 제게 물어보세요.”가 올바른 높임 표현이다. 나머지는 모두 올바른 객체 높임의 표현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객체가 생략되었다. “다른 모자를 (손님께) 보여 드리지요.”로 만든다면 ‘드리지요’는 객체인 ‘손님’을 높인 올바른 표현이다.
- ② ‘모시고’는 객체인 ‘어머니’를 높인 올바른 표현이다.
- ④ 객체가 생략되었다. “오랜만에 (선생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로 만든다면 ‘뵙게’는 객체인 ‘선생님’을 높인 올바른 표현이다.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동에 해당하는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동이란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것으로 동사나 형용사에 사동의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붙어서 이뤄진 타동사이다.

- ① 앞 마당에 눈들이 잔뜩 쌓여 갔다.
- ② 그 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 ③ 결국에 그 아이를 울리고 말았다.
- ④ 더 이상 나사를 돌리지 말아라.

05

해설 ①

①의 ‘쌓여’는 기본형이 ‘쌓이다’이며 ‘쌓다’의 피동사이다. ‘쌓이다’는 사동 표현은 없으며 모두 ‘쌓다’의 피동사이다.

오답 피하기

나머지는 모두 사동사이며 목적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사동문으로 만들 수 있다. ② 고기를 익히다, ③ 아이를 울리다, ④ 나사를 돌리다

6. 겹받침의 발음이 옳은 것은?

- ① 맑다 [막따]
- ② 읊고 [읍꼬]
- ③ 밭지 [밭찌]
- ④ 할다 [할따]

06

해설

‘맑다’는 ‘막다[막따], 맑아[말가], 맑으니[말그니], 맑고[말꼬], 맑지[막찌]로 발음한다.

오답 피하기

- ② 읊고[읍꼬], ③ 밭지[밭찌], ④ 할다[할따]

7. 다음 시조의 주제와 가장 유사한 사자성어는?

산수간 바회 아래 뒤집을 짓노라 허 니
 그 물론 늙 들 은 웃는다 허 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느 내분인가 허 노라

보리밥 풋는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희긋 몃? 의 슬? 지 노니노라
 그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 이 이시라

- 윤선도, 「만흥(漫興)」 -

- ① 안분지족(安分知足)
- ② 박학다식(博學多識)
- ③ 욕속부달(欲速不達)
- ④ 강풍명월(江風明月)

07

해설 ①

「만흥(漫興)」은 모두 6수인 윤선도의 연시조이며, 수록된 지문은 1수와 2수이다. 이 시조는 작가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해남의 금쇄동에 은거할 때에 지은 작품으로, 한문 투의 표현이 없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시조의 각 연에서 자연은 세속의 일에 대비되어 그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자연과 함께하며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태도가 드러난다.

① 안분지족(安分知足):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

오답 피하기

- ② 박학다식(博學多識): 학식이 넓고 아는 것이 많음
- ③ 욕속부달(欲速不達): 일을 빨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
- ④ 강풍명월(江風明月): 강가의 바람과 하늘의 밝은 달의 뜻으로, 자연(自然)의 아름다운 경치를 의미한다. 이 시조가 자연을 소재로 삼은 것은 맞지만 제시된 지문은 '안분지족'과 가장 어울린다.

참고 작품 해석

산수 간 바위 아래에 풀집을 지으려하니, / 그것(내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지만, /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생각으로는 내 분수에 맞는 일로 여겨지노라.

보리밥과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 바위 끝이나 물가에서 실컷 노니노라. / 그 밖에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까닭이 있으랴.

8. 다음에서 설명하는 ‘품사의 통용’에 해당하는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 9품사는 각 부류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문법적 성질이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단어 가운데는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 한다.

- ①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간다. /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하얗다.
- ② 그 애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 ③ 뛰는 친구와 걷는 친구 모두 제자리에 멈췄다. / 저 친구들은 뛰었고, 이 친구들은 걸었다.
- ④ 철수가 얻은 만큼이 얼마이고 영수가 잃은 만큼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 오늘 우리는 그 팀들이 할 만큼만 하고, 내일은 저 팀들이 할 만큼만 하면 된다.

08

해설 ②

‘열을’, ‘백을’의 각각 ‘열’과 ‘백’은 ‘10’과 ‘100’의 뜻이며 조사가 붙은 수사이다. 그러나 ‘열 사람’과 ‘백 말’의 각각 ‘열’과 ‘백’은 ‘10의’와 ‘100의’의 뜻이며 조사가 붙지 않고 명사인 ‘사람’과 ‘말’을 꾸미는 관형사(수 관형사)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모두 형용사이다. ‘푸른’과 ‘하얀’이 기본형인 독립된 단어가 없다. ‘하늘이 푸르다’, ‘구름이 하얗다’로 서술적 표현이 가능한 형용사이다.
- ③ 모두 동사이다. ‘뛰는’과 ‘걷는’이 기본형인 독립된 단어가 없다. ‘친구가 뛰다’와 ‘친구가 걸다’로 서술적 표현이 가능한 동사이다.
- ④ 모두 의존 명사이며 띄어 쓴다.

참고 만큼

의존 명사(용언의 관형사형 뒤 ‘그런 정도로’, ‘실컷’)
 예) 노력한 만큼 / 주는 만큼 / 못했던 만큼

조사(체언 뒤 ‘그런 정도로’)
 예) 당신만큼 / 부모님에게만큼은

9.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굽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여물 썬 소리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봄비다
 - 박용래, 「저녁 눈」 -

- ① 중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 ② 토속적 소재를 활용하여 향토색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유사 어구의 강조와 영탄적 어조를 통해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④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9

해설 ③

이 시는 눈 내리는 겨울 저녁 나그네의 애상과 정서를 향토적 정서와 결합하여 그린 작품이다.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적 기법과 생략, 여백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향토의 사라져가는 정취를 애뜻하게 그려냈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 봄비다’가 반복되기 때문에 유사 어구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바르다. 그러나 이 시에는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 시는 감정보다 이미지와 정서를 조용히 보여주는 시이며, 시골의 정취와 정서를 반복적이고 묘사적인 이미지로 그려낸 작품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저녁때’는 하나의 단어이다. 시간의 뜻인 ‘저녁인 때’와 식사 뜻의 함께 지닌 ‘저녁밥을 먹는 때’로 모두 해석할 수 있다.
- ② 말집, 조랑말, 여물, 변두리 빈터 등 농촌적 소재가 등장하며, 한국적 시골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 ④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 봄비다’는 구조가 네 행 내내 반복되고 있다.

10. 밑줄 친 부분 중 사이시옷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햇님이 방긋 웃습니다.
- ② 윗문장에서 잘못 쓰인 어휘를 고르시오.
- ③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 ④ 반대하는 사람은 가위표를 해주세요.

10

해설 ③

[풀이] 아래쪽의 입술을 뜻하는 ‘아랫입술’로 사이시옷 표기를 해야 하며 발음도 [아랜닙쑈]로 사잇소리를 발음한다.

오답 피하기

- ① ‘해님’(O)이 맞다. ‘-님’은 접미사이기 때문에 사이시옷과도 관련이 없다.
- ② ‘위문장’(O)이 올바르다. ‘위 문장’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그러나 ‘윗니, 윗도리, 윗목, 윗입술’(O)은 하나의 단어이며 이 경우는 사이시옷 표기가 맞다.
- ④ ‘가위표’(O)가 맞다. 거센소리인 ‘ㅍ’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사잇소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발음은 [가위표]이다.

11. 다음 공문서의 밑줄 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는 해마다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구인·구직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취업 알선, 구직자의 채용 기회, 일자리 기업의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고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취업 박람회 개최 시 지역 기업 홍보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① 귀사 → 귀 사
- ② 구인·구직자간 → 구인·구직자 간
- ③ 구직자의 채용 기회 → 구직자의 취업 기회
- ④ 거버넌스 → 협치

11

해설 ①

‘귀사(貴社)’는 주로 편지글에서, 상대방의 회사를 높여 이르는 말로 하나의 단어이며 붙여 쓴다. 참고로 ‘귀사, 귀교, 귀댁’ 등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오답 피하기

② ‘구직자간’에서 ‘간(間)’은 ‘관계’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

간 (間)	① 의존 명사(‘사이, 관계’의 뜻) 예) 서울과 부산 간 야간열차. / 부모와 자식 간 예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 의존 명사(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 예)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u>간</u> 에 열심히만 해라.
	① ‘-간(間)’(‘동안, 장소’의 뜻인 접미사) 예) 이틀 <u>간</u> / 한 달 <u>간</u> / 삼십 일 <u>간</u>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간’) 예) 대장 <u>간</u> / 외양 <u>간</u> (장소)
	② 한 단어로 굳어진 말 예) 부부 <u>간</u> / 부자 <u>간</u> / 내외 <u>간</u> / 동기 <u>간</u> / 고부 <u>간</u> / 부녀 <u>간</u> / 인척 <u>간</u> / 천지 <u>간</u> / 피차 <u>간</u> (彼此間) / 좌우 <u>간</u> / 다소 <u>간</u> / 조만 <u>간</u> / 다년 <u>간</u> / 그 <u>간</u>

- ③ ‘취업’은 구직자가 하고, ‘채용’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 ‘구직자의 취업 기회 / 기업의 채용 기회’(O)가 올바른 표현이다.
- ④ 거버넌스(governance)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져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로 해석할 수 있는 외래어이다. 현재 법제처에서는 법령 규정에 나오는 ‘거버넌스’를 ‘관리체제’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관협력’이라는 행정 순화어를 사용한다. 기타 용어사전에는 ‘지배구조’, ‘협치’ 등으로 풀이해 둔 곳도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정책, 행정, 관리, 민관, 협력, 협치’ 등으로 문맥에 알맞게 바꾸어 쓰는 것을 권하고 있다. 한글문화연대에서는 말모이 모임을 통해 ‘거버넌스’를 대신할 우리말에 ‘협치’를 뽑았다. ‘관리/협치/정책’(O)

12.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쓴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누군가 했더니 철수예요.
- ㉡ 빨간색 글자의 뜻이 뭉예요?
- ㉢ 그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예요.
- ㉣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 ① ㉠, ㉢
- ② ㉡, ㉣
- ③ ㉠, ㉡
- ④ ㉢, ㉣

12

해설 ①

‘-예요’는 종결어미이며,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쓰이므로, ‘책이에요, 아니예요’와 같이 쓴다. 다만 받침이 없는 체언 ‘어디’, ‘거’ 등 뒤에는 서술격 조사 어간 ‘이’가 붙고 그 뒤에 어미 ‘-예요’가 붙은 ‘-이에요’의 준말 ‘예요’를 쓴다. 가령 ‘어디예요/보내지 않을 거예요’와 같이 쓴다.

- ㉠ 받침 없는 이름 뒤이기 때문에 ‘-예요’를 붙여 ‘철수예요’(O)가 올바른 표기이다.
- ㉡ ‘-예요’는 ‘이다’나 ‘아니다’의 뒤에 붙어서 설명이나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아니예요’(O)가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피하기

- ㉢ 받침이 있는 명사 뒤에는 ‘-이에요’를, 받침이 없는 명사 뒤에는 ‘-예요’를 사용한다. ‘뭉’는 ‘무어’의 준말이며 후회나 아쉬움을 강조할 때 쓰는 명사이다. ‘뭉예요’(O)가 올바른 표기이다.
- ㉣ ‘거예요’(O)가 올바른 표기이다. ‘거’는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로 명사이다. ‘거’(명사) + ‘이-’(서술격 조사) + ‘-예요’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이에요’(O)가 줄어 ‘거예요’(O)가 올바른 표기이다.

참고 이예요 / 예요

- 받침 있는 말 뒤: 이예요(=이어요) 예) 책상이예요. 책이예요.
- 받침 없는 말 뒤: 예요(=여요) 예) 뭉예요. 갈 거예요. 쌍둥이예요.

1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뻥히 들여다 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가 개울둑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래도 재미있는 양 자꾸 물을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자리를 비킬 모양이다.

- ① 서술의 초점이 소년에 맞춰져 있다.
- ② 장황한 문체에 의한 장면 묘사가 두드러진다.
- ③ 서술의 시점이 소녀의 입장에 고정되어 있다.
- ④ 작가의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13

해설 ④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이다. 이 글은 소녀의 행동을 외부에서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지 않고 객관적 관찰자 입장을 유지한다.

오답 피하기

- ① 글의 초점은 오히려 소녀의 행동 묘사에 있다.
- ② 이 소설은 문장은 비교적 간결하고 묘사 중심이다. ‘장황한 문체’는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한 문장 구조를 말한다.
- ③ 소녀의 행동은 자세히 묘사되지만, 서술자는 소녀의 내면에 직접 접근하지 않으며, 소녀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14. 다음 설명을 참고할 때 ㉠~㉣ 중 표현 방식이 다른 한 가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을 '직접 화행'이라고 한다.
예) "창문을 열어주렴."
- 화자의 의도가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을 '간접 화행'이라고 한다.
예) "너무 덥지 않니?"(창문이 닫혀 있어서 더울 때)

- ㉠ 아내: ㉠형광등을 새로 사왔어.
남편: 응, 내가 갈아줄게.
- ㉡ 아들: ㉡밤 늦게까지 공부를 했더니 배가 많이 고프네요.
어머니: 밥 차려놔오니 얼른 먹어라.
- ㉢ 친구 A: ㉢여기서 너희 집은 어떻게 가지?
친구 B: 300번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돼.
- ㉣ 학생 A: ㉣축이 다 부러져 쓸 연필이 없네.
학생 B: 자, 내 연필을 빌려 줄게.

14

해설 ③

㉢은 직접 화행이다. A는 집에 가는 방법을 물었고, B는 버스를 타고 가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다. 나머지는 모두 간접 화행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형광등을 사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정보 전달이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형광등을 갈아달라는 간접적 의도를 전달하였다.
- ② ㉡은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리는 정보 전달이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께 밥을 차려달라는 간접적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 ④ ㉣은 쓸 연필이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정보 전달이다. 그러나 A는 B에게 연필을 빌려 달라는 간접적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15. 다음 로마자 표기법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로마자'란 '라틴문자'라고도 하며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문자로서 영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언어를 기록하는 표준 문자이며 유럽인이 정착한 곳과 그 밖의 나라에서도 쓰인다.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3) 음운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 ① 갑천 → Gapcheon
- ② 살풀이 → salpuri
- ③ 고비 → gobi
- ④ 강릉 → Gangreung

15

해설 ④

강릉은 [강능]으로 발음하며 (3)에 따라 음운변화를 반영하여 'Gangneung'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ㅂ'은 자음인 'ㅈ' 앞에서 'p'로 적는다.
- ② '살'의 'ㄹ'은 자음 'ㅍ' 앞에서는 'l'로 적는다. '풀'의 'ㄹ'은 모음 'ㅣ' 앞에서 'r'로 적는다.
- ③ '비'는 'ㅂ'과 모음 'ㅣ'이기 때문에 여기서 'ㅂ'은 모음 앞이므로 'b'로 적는다.

16. 우리말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가을 들어서는 주문이 밀려 생산 라인이 24시간 가동되어졌다.
- ② 작은형, 아버지가 주차장으로 빨리 오시래.
- ③ 선생님께서는 연구실에 책이 많이 계신다.
- ④ 생각해 보니, 지금 대구도 정말 덥겠다.

16

해설 ④

[풀이] '생각해 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생각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측이자 미래 시제인 '덥겠다'를 사용하는 것은 어법에 부합한다.

오답 피하기

- ① '가동되어졌다'는 피동 표현 '-되다'와 '-어지다'를 두 번 사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가동되었다'(O)로 고쳐야 올바른 표현이다.
- ② '아버지'가 가장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O)로 고쳐야 한다. 그리고 '오다'의 주체는 아버지가 아니라 작은형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차장으로 빨리 오라고 하셔'(O)가 올바른 표현이다. '-시'는 잘못 쓰였다. '오라고 하셔'라고 표현해야 한다.
- ③ 간접 높임을 잘못 사용한 문장이다. '책'은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책이 많이 있으시다'(O)로 고쳐야 한다. 여기서 '-(으)시-'는 선생님을 높인 올바른 높임 표현이다.

17.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집이 가난하여 말이 없으므로 가끔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였다. 그런데 말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 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

는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비로부터, 종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많은 재산을 가진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맹자가 일کن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차마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 ① 힘과 권세의 허무함
- ② 소유의 진정한 의미
- ③ 겸손과 지혜의 소중함
- ④ 근심을 이겨내는 방법

17

해설 ②

[풀이] 이 글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힘, 권세, 지위, 재산 등이 사실은 남에게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성찰을 담고 있다. 처음에는 남의 말을 조심스럽게 타다가 점차 익숙해지면 자만하여 함부로 다루게 되고, 그로 인해 위험을 겪게 되는 장면은 인간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심리를 상징한다. 작가는 이러한 비유와 유추를 바탕으로, 인간이 삶 속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대부분의 것이 실제로는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이곡, '차마설(借馬說)'

고려말 한문 수필. 유추의 방식을 통해,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주제로 한 한문 수필이다.

18. (가) ~ (다)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문자는 통치 수단이었다. 문자를 만드는 행위는 새로운 국가 질서의 창조를 뜻한다. 문자는 황제의 명령을 담은 매개체이며, 문자를 통해 황제의 명령이 변방까지 전해진다. 말하자면 문서행정 시스템이, 시황제의 천하통일 이후로 국가 통치의 기본이었다. 문자 기반 행정 체계가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로 퍼져서, 동아시아 문자문화사의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가) 한자의 상형은 뜻의 세계에 관한 것이다. ‘山’의 뜻이 산의 형상인 것이다. 그러나 한글은 이러한 뜻의 세계와 관련이 없다. ‘ㄱ’은 그 소리의 실체가 혀의 고부라진 모습으로 시각화되었다. 그러나 한글의 ‘상형’이란 한자의 상형과 달라서, 굳이 한글을 상형자라고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나) 문자에는 권위가 필요하다. 세종도 이에 따라 한자의 기본 원리인 상형(象形)이나 고전(古篆)의 모방이라는 논리를 부각하였을 것이다. 한자의 상형과 한글의 상형은 자형이 사물의 형상을 본떴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적지 않다.

(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발명자가 굳이 상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다른 아닌 동아시아 오랜 문자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글이 한자와 제작 원리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한글도 옛 성현들이 만들어 낸 문자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보이고자 했던 세종의 논리를 통하여 우리는 한글에 담긴 동아시아의 문자 이데올로기를 읽어낼 수 있다.

- ① (다) - (나) - (가)
- ② (나) - (다) - (가)
- ③ (다) - (가) - (나)
- ④ (나) - (가) - (다)

18

해설 ④

이 글은 한글의 ‘상형’ 개념을 중심으로, 한자와 한글의 상형 방식의 차이와 그것이 사용된 이데올로기적 맥락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먼저 문자는 권위가 필요하며, 세종이 한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자의 상형 원리를 빌렸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글의 시작 부분에 제시된 내용과 이어지는 흐름으로 자연스럽다. (가)는 그 다음으로, 한자의 상형과 한글의 상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면서 두 문자 체계의 차이를 비교한

다. (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를 들어 확장한 부분이므로 중간 전개에 알맞다. (다)는 마지막으로, 그림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상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데올로기적 의도와 그 함의를 설명한다. 결론 및 성찰적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므로 가장 자연스럽게 마무리된다.

문자의 권위 필요성 제시(나) → 한자와 한글의 상형 비교(가) → 이데올로기적 해석과 의미 부여(다)

19. 다음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날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으로 차례를 들 수 있다. 각 가정에서는 아침 일찍 제사상에 설 음식을 두루 갖추어 놓고 차례를 지낸다.

- ① 정의
- ② 예시
- ③ 분류
- ④ 비교

19

해설 ②

글은 설날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으로 차례를 들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여 제사상에 설 음식을 두루 갖추어 놓고 차례를 지낸다는 방식의 ‘차례’를 설명하였다. ‘세시 풍속’이라는 일반적인 개념 아래에 ‘차례’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정의’는 어떤 개념이나 사물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글은 정의와 관련이 없다.
- ③ ‘분류’는 어떤 개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이나 범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 글은 분류와 관련이 없다.
- ④ ‘비교’는 두 가지 이상을 비슷하거나 다른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글은 비교와 관련이 없다.

20.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각하라는 단어는 ‘폐하’, ‘전하’, ‘저하’, ‘합하’ 등과 함께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경칭 중 하나였다. 먼저 ‘황제’에게는 ‘폐하’라는 경칭이 사용되었다. ‘폐하’란 ‘돌계단 아래’라는 뜻이다. 황제를 만나는 사람은 폐하라는 호칭을 통해 자신이 돌계단 아래 있다는 것을 황제에게 알린다. 즉, ‘폐하’를 통해 “저는 돌계단 아래 있습니다.”라고 황제에게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폐하라는 경칭은 화자가 청자를 직접 높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부름으로써 결국은 상대를 부르게 되는 간접적 방법으로 작동하는 경칭이다. ‘하’자가 들어가는 경칭은 모두 이렇게 자신을 불러 결국은 상대를 부르게 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작동하는 경칭들이다.

‘전하’라는 경칭은 왕이나 왕후 등에게 사용되었다. 이들이 ‘전하’라고 불린 이유는 궁궐 내에 ‘전’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전각들이 바로 이들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즉 왕이나 왕후는 ‘전 위’에 있고 이 경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하’라는 경칭이 사용된 것이다. ‘전하’ 다음은 ‘저하’였다. 저하의 ‘저’는 궁궐 내 전각의 명칭은 아니고 단지 세자가 사는 큰 집을 의미한다. 저하는 조선에서만 사용된 표현으로 세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경칭으로 사용되었다.

다음 위계의 경칭은 ‘합하’였다. 합하는 왕족 중 서열이 높은 사람이 기거하거나 정승이 집무를 보는 건물인 ‘합’의 아래라는 뜻이다. 귀족의 경칭 중에서 가장 낮은 위계를 가진 것은 ‘각하’였다. 각하의 ‘각’ 또한 궁궐의 건물 중 하나로 왕세손이 기거하거나 정2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업무를 볼 때 사용했던 건물이다. 왕족이 아닌 사람에게 쓰는 가장 높은 경칭은 합하였고, 각하는 그 다음 위계를 가진 사람에게 쓰는 경칭이었다.

- ① ‘폐하’는 ‘황제’를 간접적으로 높여 부르는 호칭이다.
- ② ‘저하’는 ‘폐하, 전하’ 등과 같이 궁궐의 전각 명칭에서 비롯된 호칭이다.
- ③ ‘합하’는 왕족이 아닌 사람에게 쓰는 호칭 중 가장 높은 경칭이다.
- ④ ‘각하’는 ‘폐하, 전하, 저하, 합하’ 중 가장 위계가 낮은 호칭이다.

20

해설 ②

‘저하’는 궁궐 내 전각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 ‘저하’의 ‘저’는 궁궐 내 전각의 명칭은 아니고, 단지 세자가 사는 큰 집이다. 따라서 ‘저하’는 전각 명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자의 거처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폐하’의 ‘하’가 ‘계단 아래’라는 뜻이며, 화자가 자신을 낮추어 부름으로써 상대(황제)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 ③ “왕족이 아닌 사람에게 쓰는 가장 높은 경칭은 ‘합하’였고, ‘각하’는 그 다음 위계였다.”
- ④ 귀족의 경칭 중 가장 낮은 것이 ‘각하’이다.

21.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발견할 수 있는 한국어 발음의 오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지는 발음 오류들이다. ‘오’와 ‘어’의 구별이 어려워 ‘이촌’과 ‘이천’을 잘못 발음하거나 ‘ㄱ’과 ‘ㅋ’의 구별이 어려워 ‘그림’과 ‘크림’을 반대로 발음하게 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오류 혹은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외국인 특유의 발음이 느껴지는 것도 있다. 영어의 ‘C’ 발음과 한국어의 ‘씨’ 발음이 그러한 예가 된다. 외국인이 ‘철수 씨’를 ‘철수 C’라고 발음한다면 듣기에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C’를 ‘씨’가 아닌 다른 발음으로 들을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오류를 구별하는 것은 발음 교육의 목표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발음 교육의 목표를 한국 사람처럼 발음하는 것으로 정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외국인 말투도 교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외국인 말투는 특별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에 집중하여 발음을 교육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 듣고 이해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발음,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발음을 발음 교육의 목표로 삼게 된다. 성인이 되어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언어의 모어 화자처럼 발음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발음 교육의 목표 또한 재고할 필요가 있다.

- ①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지는 발음 오류를 우선으로 하여 발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성인이 된 후에는 외국어 학습에서 모어 화자와 같은 발음 능력을 가지기 어렵다.
- ③ 외국인 특유의 발음도 발음 교육의 목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④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는 관점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다.

21

해설 ①

지문은 외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의사소통에 실패를 일으키는 오류(‘오/어’, ‘ㄱ/ㅋ’ 처

럼 의미 전달이 달라져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와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으나 외국인 말투로 어색한 발음(‘씨’를 ‘C’처럼 발음하는 경우)이다. 이 두 오류를 구별하는 이유는, 발음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중에서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키는 오류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발음 교육의 목표도 의사소통 [오답] ② 지문의 뒷부분에서 부가적 설명으로 언급된 내용이며, 지문의 중심 주장이나 핵심 내용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② 지문의 뒷부분에서 부가적 설명으로 언급된 내용이며, 지문의 중심 주장이나 핵심 내용은 아니다.
- ③ 지문의 주장과 어긋난다. 지문은 외국인 말투가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굳이 교육의 목표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 ④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 [22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라는 개념에 대해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주장하던 간에, 의지가 외부로 나타난 현상이 인간 행위이며, 그것은 여타의 자연적 사실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규정된다. 역사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러한 현상들의 원인이 아무리 깊숙이 감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에서 인간 의지의 자유가 발휘되는 긴 안목으로 고찰해 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 어떤 규칙적인 진행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가) 각 개인에게는 얽혀져 있고 불규칙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인류 전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록 느끼지는 하지만 지속되고 있는 근원적인 소질의 발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서 결혼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비롯되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 등을 들어보자. 이들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들이므로 그러한 사건들의 수량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어떠한 규칙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나) 큰 국가들의 연간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인간사들은 변덕스러운 날씨가 불변의 법칙에 따라 전개되듯이 불변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22.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 행위
- ② 개인의 계획
- ③ 의지의 자유
- ④ 자연의 법칙

22

해설 ③

㉠이 포함된 문장을 보아야 한다. 이 문장은 ‘의지의 자유’라는 개념이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행위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규칙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에는 ‘의지의 자유’라는 철학적 개념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이 개념이 전제가 되어야 ‘그 의지가 외부로 나타난 것이 인간 행위’라는 문장이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후 내용에서는 인간 의지가 자유롭게 작용하는 듯 보이나, 집단적 통계에서는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된다는 주장이 전개된다. ‘의지의 자유’와 규칙성(자연법칙)의 관계를 대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인간 행위는 문장 중반부에서 의지의 결과물로 등장하므로, 처음부터 이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문맥상 어색하다.
- ② 글의 흐름과 관련이 없다.
- ④ 자연의 법칙은 인간 행위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글 전개 후반에 등장한다. 글의 서두에 바로 들어갈 단어로는 적절하지 않다.

23. (가), (나)에 해당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런데, 그래서
- ② 그런데, 그렇지만
- ③ 그리고, 그래서
- ④ 그리고, 그렇지만

23

해설 ④

(가)의 앞과 뒤 두 문장은 모두 ‘기대할 수 있다’는 유사한 문장 구조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 문장의 의미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붙는 구조이다. 따라서 앞뒤 문장을 순접(내용의 나열, 확장) 관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그리고’가 가장 적절하다.

(나)의 앞과 뒤 문장은 겉으로 보기에 불규칙하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계적으로 일정한 규칙성을 보인다는 반전이 전개된다. 따라서 (나)에는 역접 의미를 나타내는 ‘그렇지만’이 가장 자연스럽다.

24.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확산이란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멸치 육수를 예로 든다면, 멸치 안에 모여있던 물질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농도가 열어지고 희석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들이 한곳에 모여있지 않고 넓게 퍼지려는 경향을 과학자들은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엔트로피란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과학 용어인데요, 모여있지 않고 흩어질수록 무질서도는 증대됩니다.

이러한 확산은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첫째는 열입니다. 물질이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조리할 때 가해지는 열이 이러한 에너지의 공급원이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확산되는 물질의 크기인데, 아무래도 그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확산이 수월하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확산되어 들어가는 매질의 상태입니다. 육수의 경우는 보통 그 매질이 물이기 때문에, 물질이 확산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갈비찜처럼 유용한 맛성분들을 농도가 높은 육수에서 고기 안쪽으로 확산시켜야 할 경우라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① 액체일 때보다는 기체일 때 엔트로피가 증대되겠군.
- ② 멸치 육수 내는 것보다 사골 육수 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매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군.
- ③ 미지근한 물보다는 팔팔 끓는 물에서 우려내야 원하는 성분을 제대로 얻을 수 있겠군.
- ④ 저분자인 이노신산이 고분자인 지방보다 빨리 확산 되겠군.

24

해설 ②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으로 확산되어 들어가는 매질의 상태를 언급했다. 멸치 육수와 사골 육수 모두 물이라는 액체 상태의 매질을 사용한다. 매질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은 액체와 기체, 고체와 같은 물리적 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멸치 육수와 사골 육수의 매질 상태는 액체로 동일하다.

오답 피하기

① 모여있지 않고 흩어질수록 무질서도는 증대됩니다. 물질은 일반적으로 고체 < 액체 < 기체 순으로 분자 배열이 자유롭고 무질서한 정도가 커진다. 따라서 액체 상태보다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하고 넓게 퍼져 있는 기체 상태에서 엔트로피(무질서도)가 더 증대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③ 확산의 첫 번째 요인이 열이며, ‘물질이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조리할 때 가해지는 열이 이러한 에너지의 공급원이 됩니다.’라고 언급했다. 팔팔 끓는 물은 미지근한 물보다 열에너지가 훨씬 높으므로, 확산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 원하는 성분을 더 잘 우려낼 수 있다.

④ 확산의 두 번째 요인은 확산되는 물질의 크기이다.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확산이 수월하게 일어난다. ‘저분자’는 분자 크기가 작은 것을, ‘고분자’는 분자 크기가 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분자인 이노신산이 고분자인 지방보다 확산이 더 빠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25.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해당 예금자의 가계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국가 금융 제도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험 제도’를 실행한다. 이는 예금 보험 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여러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 정부는 금융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예금자 1인당 2천만 원이던 종전의 보장 한도를 높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의 원금 전액을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원래 예금자 보호 제도가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되 부실 금융 기관을 선택한 예금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예금 전액이 아니라 일정 금액만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깬 것이다.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2001년부터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보장 한도를 올렸는데 이후 저축 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저축 은행의 보장 한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보장 한도가 높으면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 제도에만 의존해 무분별하게 예금을 늘려 부실하게 운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 ① 예금자 보험 제도란 금융회사가 여러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② 예금자 보험 제도의 보장 한도가 높으면 금융기관이 이에 너무 의존해서 부실하게 예금을 운용할 수도 있다.
- ③ 예금자 보험 제도는 외환 위기 이후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해 준 적이 있다.
- ④ 예금자 보험 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예금 보험금은 예금자가 예금한 금융회사가 지급한다.

25

해설 ④

“예금 보험 공사가 평소에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일

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금 보험금은 예금 보험 공사가 지급하는 것이지, 예금자가 예금한 금융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금융 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② “보장 한도가 높으면 금융 기관이 예금자 보호 제도에만 의존해 무분별하게 예금을 늘려 부실하게 운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 ③ “1997년 외환 위기로 여러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 정부는 금융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예금자 1인당 2천만 원이던 종전의 보장 한도를 높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의 원금 전액을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2025년 일반군무원 국어 9급 총평

	유형	2025
1	문법	4
2	어문 규정	5
3	어법	2
4	어휘	1
5	한자, 한자어	
6	속담, 한자성어	1
7	비문학 독해	8
8	화법, 작문	1
9	논리	
10	문학	2
11	기타	

2020년 시험이 공개된 이후의 기초를 충실히 따른 시험이었다. 문법, 독해, 어휘, 문학 등 여러 영역에서 고르게 문제를 출제했으며, 지식, 추론, 독해, 논리 등 다양한 유형을 복합적으로 다루었다. 군무원이자 공무원이 되기 위한 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매우 적합한 시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군무원 국어 시험은 9급과 7급 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습자라면 함께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문법, 어문 규정

문법과 어문 규정을 포함해 일부 어법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여전히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문법 파트의 출제 비중이 높다. 맞춤법, 표준어 사용, 띄어쓰기, 서술어의 자릿수, 높임 표현, 사동 표현, 품사의 통용 등 다양한 문법 요소에서 여러 문항이 출제되었다. 특정 문법 요소를 지나치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이는 2020년 시험이 공개된 이후 두드러진 경향이다. 고등학생 수준의 문법 지식이 정확하게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개편된 국가직(지방직 포함) 시험의 문제 유형 일부가 군무원 시험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9급과 7급 모두 영향을 받았다. ‘공문서 수정하기’는 국가직 시험과 동일하며, ‘직접 화행·간접 화행’ 관련 문제도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었다. 군무원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국가직 및 지방직 기출 문제도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다.

2. 독해와 추론

현재 대부분의 국어 시험에서 독해와 추론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읽고 이해하여 판단하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꾸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문의 길이는 400자 내외의 짧은 글과 700자 이상의 긴 글이 고루 출제되었으며, 지문의 주제도 다양했다. 언어 행위, 인문학(‘차마설’의 소유 개념과 인간의 자유 의지), 역사학(왕의 호칭), 경제학(예금자 보호 제도), 과학(확산 개념) 등 여러 분야에서 출제되었다. 특히 국가직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언어학(한국어 발음, 한자와 한글의 상형성) 관련 지문이 출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독해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꾸준한 학습이 중요하다. “매일 조금씩, 꼼꼼하게”라는 원칙을 세우고, 하루에 5문제 정도씩 독해와 추론 문제를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문학

7급과 같이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을 출제했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의 서술적 특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이 곡의 한문 수필 「차마설」도 문학 작품이긴 하지만 문제 유형은 비문학 독해에 가까웠다. 윤선도의 시조 「만흥」을 한자성어와 함께 출제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현대시는 박용래의 「저녁 눈」을 출제했다. 출제된 작품은 익숙하고 난도도 높지 않았다. 군무원 시험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주요 작품 목록을 정리해두고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좋다. ‘하이클래스군무원’ 학원에서는 관련 무료 특강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강의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